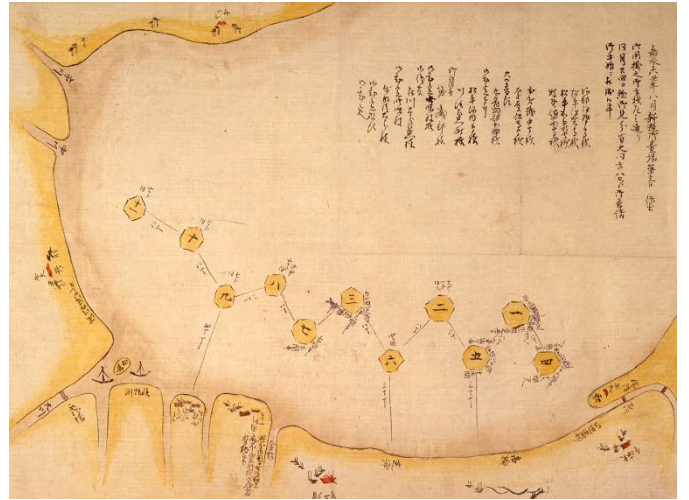


#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시나가와 포대(砲臺)

페리 함대 내항과 시나가와 포대 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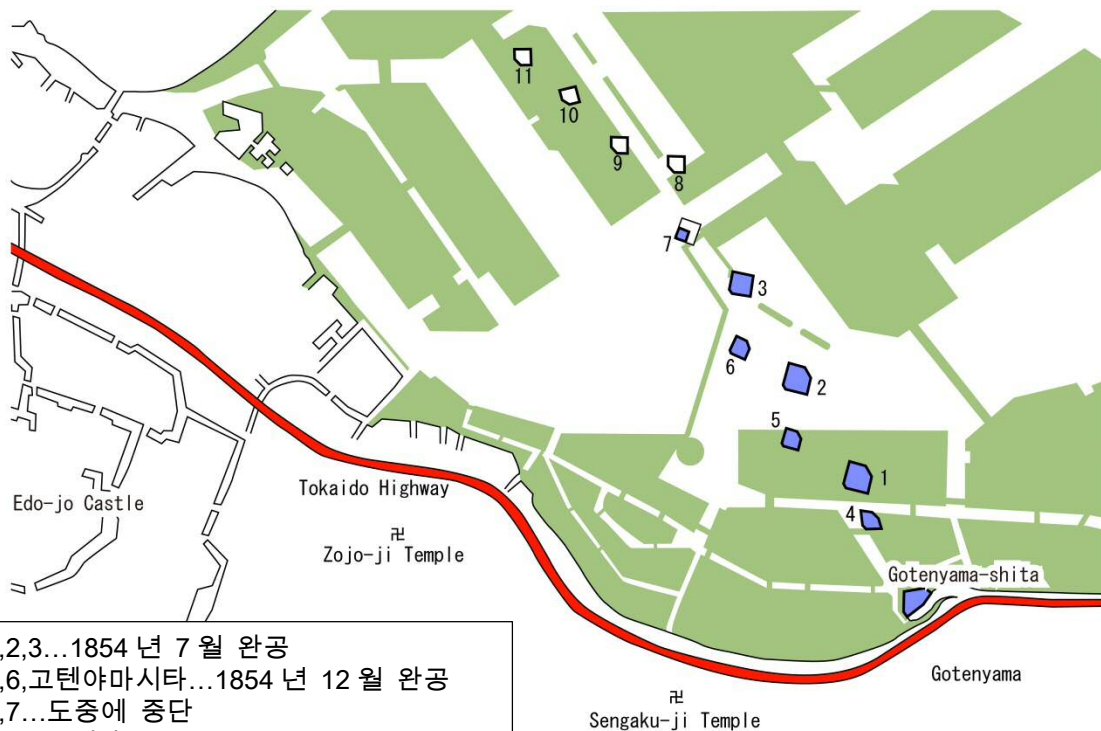
1853년 6월 3일의 미국 페리 함대 내항은 오랜 세월 동안 외국과의 교류를 제한했던 에도 막부에 방침 전환을 압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페리 함대가 돌아간 후 막부는 즉시 에도만(灣) 방위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혼다 다다노리, 에가와 히데타쓰 등에 의한 조사 결과, 시나가와 연안에 포대를 축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계획은 서양의 서책을 참고로 하여, 미나미시나가와 료시마치에서부터



▲1853년의 시나가와 포대 축조 계획도 (출처 요코하마 개항자료관 소장 「외국선이 왔을 때의 두루마리그림」)

후카가와(지금의 도쿄도 고토구)에 걸친 해상에 11개의 포대를 축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공사는 같은 해 8월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포대 축조에는 많은 자재가 필요했는데, 소나무와 삼나무 등의 목재는



No.1,2,3...1854년 7월 완공  
No.5,6,고텐야마시타...1854년 12월 완공  
No.4,7...도중에 중단  
No.8~11...미착공

간토 지방의 막부가 직접 관할하는 숲에서, 석재는 사가미(지금의 가나가와현), 이즈 · 쓰루가(두 곳 모두 지금의 시즈오카현)에서 배로 운반했습니다. 매립에 사용할 토사는 고텐야마, 이마바리번(지금의 아이치현 이마바리시 주변)의 저택, 센가쿠지 절 등의 산을 깎아서 조달했습니다. 흙을 운반하는 배가 하루 2000척에 이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하는 토목 작업원이 최대 하루 5000명에 이르는 날도 있었고, 75만 냥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조되었습니다.

제1 · 제2 · 제3포대는 1854년 7월에, 제5 · 제6포대 및 도중에 추가된, 육지와 이어져 있는 고텐야마시타 포대는 같은 해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제4 · 제7포대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도중에 중단하고, 제8포대 이후는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에가와 다로자에몬 히데타쓰(단안) 에가와 다로자에몬 히데타쓰(단안. 1801-1855)는 이즈국 나라야마(지금의 시즈오카현 이즈노쿠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타사키 가나에 및 와타나베 가잔으로부터 서양의 정세를, 다카시마 슈한으로부터 서양 포술을 배워, 나라야마에서 포술 학교를 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해상 교통 요충지로서의 이즈의 중요성, 해군 창설, 반사로(反射爐) 건설, 비상시 농민을 병사로 동원하는 것 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에가와가 세운 에도만 방위 계획을 보면, 제일선은 우라가 수도에 두었고, 시나가와 연안은 에도 내만 방위 거점 중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포대의 위치는 당초 계획보다 뒤로 물렸지만, 직접 지휘하여 6기의 포대를 완공시켰습니다. 그러나 함께 추진했던



▲포대의 대포를 시험 발사하는 모습(에가와 문고 소장)



▲에가와 단안 초상화 (에가와 문고 소장)

나라야마 반사로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1855년 1월에 별세했습니다.

시나가와 포대의 경비

최종적으로 6기가 완공된 시나가와 포대는 에도만 방위 거점으로서 도쿠가와 쇼군 가문과 가까운,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의 다이묘가 경비를 맡았습니다. 1855년부터 본격적으로 경비가 시작되어, 합동 연습과 방위 체제 개선을 꾀하여 차츰 강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다이묘가 교대로 경비를 맡으면서 1868년 막부 붕괴 직전까지 경비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 후의 시나가와 포대

메이지 유신 후의 포대 관리는 1914년까지 육군성이 맡았습니다. 그동안에 1870년에 제 2포대의 서쪽 끝에 시나가와 등대가 건설되었습니다. 시나가와 등대는 박물관 메이지무라(아이치현 이누야마시)에 이축되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제 4포대는 오아키 기쿠자부로가 육군성으로부터 빌려, 1883년에 서양식 조선소를 설치했습니다. 제3·제6 포대는 1915년에 도쿄시에 팔렸는데, 1924년에 도쿄부(府) 지사가 사적으로 임시 지정했고 1926년에 국가 지정 사적이 되었습니다.

그 후 도쿄만에 떠 있는 6개의 포대 중 제3·제6 포대를 제외한 4개는 매립되거나 철거되어 모습을 감췄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제3포대는 도립 오다이바 해변공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오다이바는 포대를 의미합니다.

고텐야마시타 포대터에서 출토된 석벽의 돌 (당관 정면 입구 옆)▶



▲제 3 포대(2007 년 8 월 촬영)